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148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17:00
□ 장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
□ 참석 이사 : 재적 이사 7명 중 이사 4명 참석
참 석 - 김동범, 김정열, 한명섭, 김동호(이상 4명)
불 참 - 엄종숙, 김주관, 오선아 (이상 2명)

개회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의장인 대표이사 김동범은 상임이사 김동호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고, 상임이사는 재적이사 7인 중 이사 4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148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개회시간 17:00).

의장은 제1호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를 상임이사에게 요청하다.

보고안건 제1호: 제147차 이사회 결과보고

상임이사가 제1호 안건에 대해 보고자료대로 보고하다.

의장은 승인 여부를 묻다. 한명섭 이사가 원안 승인을 동의하고, 김정열 이사가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없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어, 보고안건 1호의 승인을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의 일괄 상정을 묻고,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김정열 이사는 오선아 전 이사의 법인에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기타안건으로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김동호 이사는, 홍순봉 한

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회장이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후 본인의 사정으로 취임할 수 없다고 알려 와 이에 대한 처리방안도 기타안건에서 논의하기를 제안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2개안과 기타안건 2개안의 심의를 진행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묻다. 모든 이사가 이에 동의하여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1호와 심의2호의 심의안건, 그리고 2개의 기타안건을 일괄 상정하다.

심의의안 제1호: 손해배상소송 관련 합의금 지급 건

심의안건 1호 회의자료대로 상임이사가 제안이유를 설명하다.

의장은 손해배상 판결금액이 이자까지 4천만원 이상이 되어 법인이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차에 피해자 측에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자는 제안이 와서 보고한 대로 2천만원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다. 김정열 이사는 추후 가해자 백상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을 말하다. 김동호 이사는 합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합의금 조정을 대표이사가 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다.

김정열 이사는 제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한명섭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이사들의 의견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은 홍석현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 정도에서 합의할 것을 승인하는지 묻고,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1호, 홍석현 등에게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2호: 신임 감사 선임 건

상임이사가 심의안건 2호 관련 감사후보자 한택근(1961년 10월 7일 생,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 현대슈퍼빌 C-2004, 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를 추천하다.

의장은 한택근 변호사가 법인취소 관련 소송에서 우리 법인을 위해 거의 봉사 수준에서 변호활동을 했으며 아주 적절한 분이라고 설명하다.

한명섭 이사는 제안대로 감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고, 김정열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이사들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은, 신임 감사로 한택근 변호사 선임을 의결하는 데에 동의하는 지 묻고,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2호로 한택근 변호사가 신임 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

<u>기타 안건</u>

의장은 오선아 이사 고발 건과 홍순봉 이사 불취임 건에 대해 논의에 붙이다.

김정열 이사는 법인에 해를 끼친 오선아 전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함을 제기하다. 김동호 이사는 법인 임원이 정비되고 법인 주소를 송파구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선아 전이사에 대한 고발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다.

의장은 오선아 이사에 대한 범법사실을 확인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는지 물어 모든 이사가 '예'라고 답하다.

김동호 상임이사는 홍순봉 회장이 개인사정으로 이사 취임을 수락하지 않아 다음 이사회에서 새롭게 선임해야 하고, 현재 외부추천 이사인 한명섭, 엄종숙 두 분의 임기가 9월 18일로 종료되므로, 다음 이사회에서 함께 선임하는 절차를 가져야 함을 설명하다.

의장은 다음 이사회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있는 지 물어, 모든 이사가 의견 없음을 말하다.

의장은 그 밖의 논의 사항이 있는지 물어, 모든 이사가 의견 없음을 말하다.

기타 사항이 없자, 의장이 폐회 동의를 구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참석한 이사에게 감사를 표한 후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148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폐회시간 18:50)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들은 날인하다.

2023. 9. 4.

대표이사 김 동 범 (인)

이사 김 정 열 (인)

이사 한 명 섭 (인)

이사 김 동 호 (인)